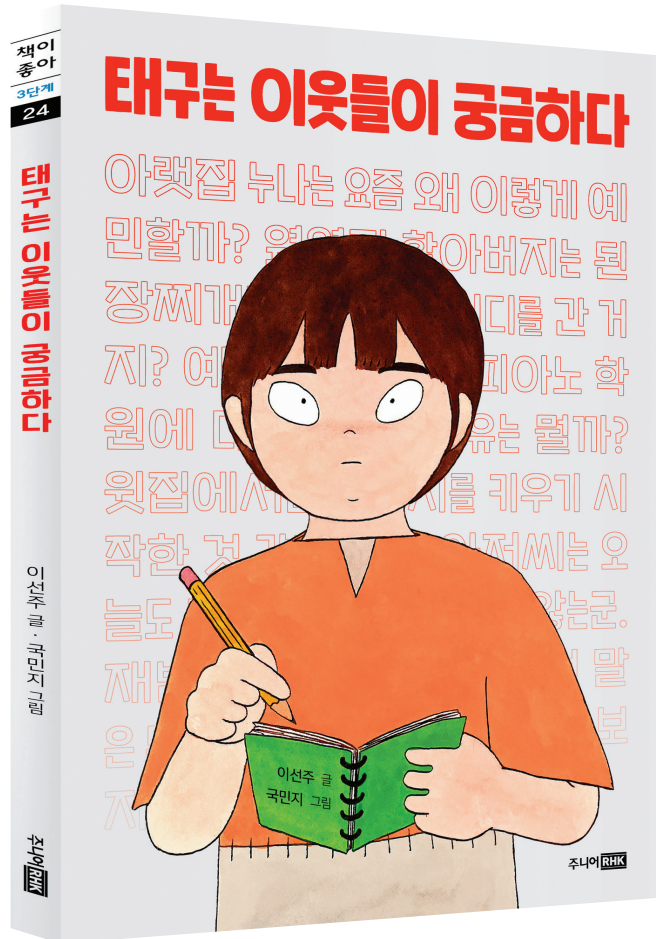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수록



문학동네
청소년문학상
수상 작가
작품

동화작가
김선정
추천

현직
초등교사
추천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

이선주 글 · 국민지 그림 | 132쪽 | 15,000원 | ISBN 978-89-255-7628-2 (73810) | 초등 고학년 대상

초등 교육과정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5-1 국어 | 3. 글을 요약해요 | 6-1 국어 |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
| 5-1 국어 | 10. 주인공이 되어 | 6-2 국어 | 1. 작품 속 인물과 나 |
| 6-1 국어 | 1. 비유하는 표현 | 6-2 국어 |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
| 6-1 국어 | 6. 내용을 추론해요 | | |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웃’이라는 단어는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웃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분명히 많은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데 간단한 인사 말고는 서로에게 다가서지 않는 것이 예의인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는 이웃이라는 존재에 주목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주인공은 ‘태구’라는 열두 살짜리 아이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아빠,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아이죠. 딱 하나만 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달리 이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않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기 전 앞표지와 뒤표지, 차례를 살펴며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상상해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책의 내용을 그려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읽으면 이야기에 이입도 잘 되고 훨씬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책 수업을 할 때도 읽기 전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책 수업의 출발점입니다.

1장 <발소리의 비밀>에서는 아랫집에 대한 태구의 관심과 꼼꼼한 기록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2장 <오래된 된장찌개>에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아이의 시선으로 보여 줍니다. 3장 <나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 속 사건은 태구가 자신의 편견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 주고, 4장 <내 인생 첫 여름휴가>에서는 휴가를 통해 크고 작은 인생의 묘미를 깨우치지요. 5장 <나를 걱정하는 아이>에서는 ‘해모’라는 아이를 통해 자신이 누군가를 관찰하듯 누군가도 자신을 관찰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태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작가는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를 통해 우리를 이웃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안내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온 이웃이라는 뜻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말이죠. 이 책을 읽고 나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이웃과 오다가다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봉운(전북 익산 천서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좌충우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드라운 마음을 건네주고 싶어 ‘봉봉샘의 보들 교실’을 열었습니다. 매일 그림책을 읽어 주고 시를 낭송하며 아이들과 읽고 쓰는 삶을 꿈꿉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온 노인처럼, 아이들 마음에 매일 책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싹이 트길 바라면서 말이죠. 지은 책으로 《원가 특별한 봉봉샘의 교실 책방》, 《잘 익은 교과서 그림책》(공저)가 있습니다. 전북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그림책 아틀리에 36.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rollerboy83

미션 1 : 책 제목 추측하기



표지 그림을 살펴보고 본문 내용 일부를 읽은 후 책 제목을 추측해 봅시다.

표지 그림	본문 내용 중 일부
	나는 십오 층짜리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이 아파트에는 한 층에 열 가구가 산다. 나는 808호에 산다. 나는 팔 층과 위아래 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웬만한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출퇴근 시간, 마트에 가는 시간 그 집 자녀들의 귀가 시간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 할머니는 내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다.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 거라나.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괄호를 채워 제목을 완성해 보세요.

태구는 ()들이 궁금하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션 2 : 표지와 차례로 책 내용 예상하기



책 표지와 차례를 통해 어떤 내용일지 미리 예상해 봅시다.

- 책 표지와 차례를 함께 살펴보고 떠오르는 낱말을 모두 적어 보세요.

표지	차례																		
	차례 <table> <tr> <td>프롤로그</td> <td>6</td> </tr> <tr> <td>발소리의 비밀</td> <td>12</td> </tr> <tr> <td>오래된 된장찌개</td> <td>33</td> </tr> <tr> <td>나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td> <td>59</td> </tr> <tr> <td>내 인생 첫 여름휴가</td> <td>80</td> </tr> <tr> <td>나를 걱정하는 아이</td> <td>105</td> </tr> <tr> <td>에필로그</td> <td>124</td> </tr> <tr> <td>작가의 말</td> <td>126</td> </tr> <tr> <td>추천의 말 _ 우리는 이웃들이 필요하다</td> <td>129</td> </tr> </table>	프롤로그	6	발소리의 비밀	12	오래된 된장찌개	33	나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	59	내 인생 첫 여름휴가	80	나를 걱정하는 아이	105	에필로그	124	작가의 말	126	추천의 말 _ 우리는 이웃들이 필요하다	129
프롤로그	6																		
발소리의 비밀	12																		
오래된 된장찌개	33																		
나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	59																		
내 인생 첫 여름휴가	80																		
나를 걱정하는 아이	105																		
에필로그	124																		
작가의 말	126																		
추천의 말 _ 우리는 이웃들이 필요하다	129																		

-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미션 3 : 발소리에 숨겨진 비밀



1장 <발소리의 비밀>을 읽으며 주인공 태구와 함께 추리해 봅시다.

- 본문 12쪽~19쪽까지 한 번 더 읽고 708호 아줌마가 태구의 집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708호 아줌마가 올라왔다. 푹푹, 문을 세 번 두드렸다. 아마 아줌마는 허리춤에 두 손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와 내가 문을 열자 허리춤에 올린 손을 들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부탁’은 발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이다.

(중략)

“우리야 백날 천날 똑같이 걷는데 어느 날은 올라오고 어느 날은 안 올라오니, 내가 지랄한다고 안 해?”

할머니는 대부분 틀린 말만 하지만, 지금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다.
어제는 살금살금 걷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쿵쿵쿵 걷는 것도 아닌데, 아줌마는 어느 땐 올라오고 어느 땐 안 올라온다.

(중략)

708호 아줌마가 올라온 날짜

4월 18일 / 4월 19일 / 4월 22일

4월 24일 / 4월 25일

708호 아줌마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추측해서 적어 보기

미션 4 : 아홉 칸 낱말 퀴즈



2장 <오래된 된장찌개>를 읽으면서 각 의미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아 써 보시다.

경계하여 조심하는 마음. ()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 ()	증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됨. ()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 ()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 ()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하게. ()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 ()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줄여 이르는 말로,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 ()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보태어서 나타냄. ()

미션 5 : 마음속 빛나는 문장들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의 각 차례에서
마음에 남았던 문장을 찾아 옮겨 적어 봅시다.

제1장
발소리의 비밀

제2장
오래된 된장찌개

제3장
나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

제4장
내 인생 첫 여름휴가

제5장
나를 걱정하는 아이

미션 6 : 6컷 만화로 표현하기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에서 제일 재밌었던 차례를 골라 보세요.
그 부분을 다시 읽고 나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6컷 만화로 그려 봅시다.

가장 재밌었던 차례	
------------	--

• 내가 그리는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 속 명장면

미션 7 : 나도 작가!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 후속작을 쓰는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 새롭게 등장시킬 인물을 소개해보세요.

새로운 등장인물	인물에 대한 소개(나이, 성별, 성격 등)

- 새롭게 발생할 사건을 적어 보세요.

-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 후속작은 어떤 내용이 될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함께 미션 : 나는 친구들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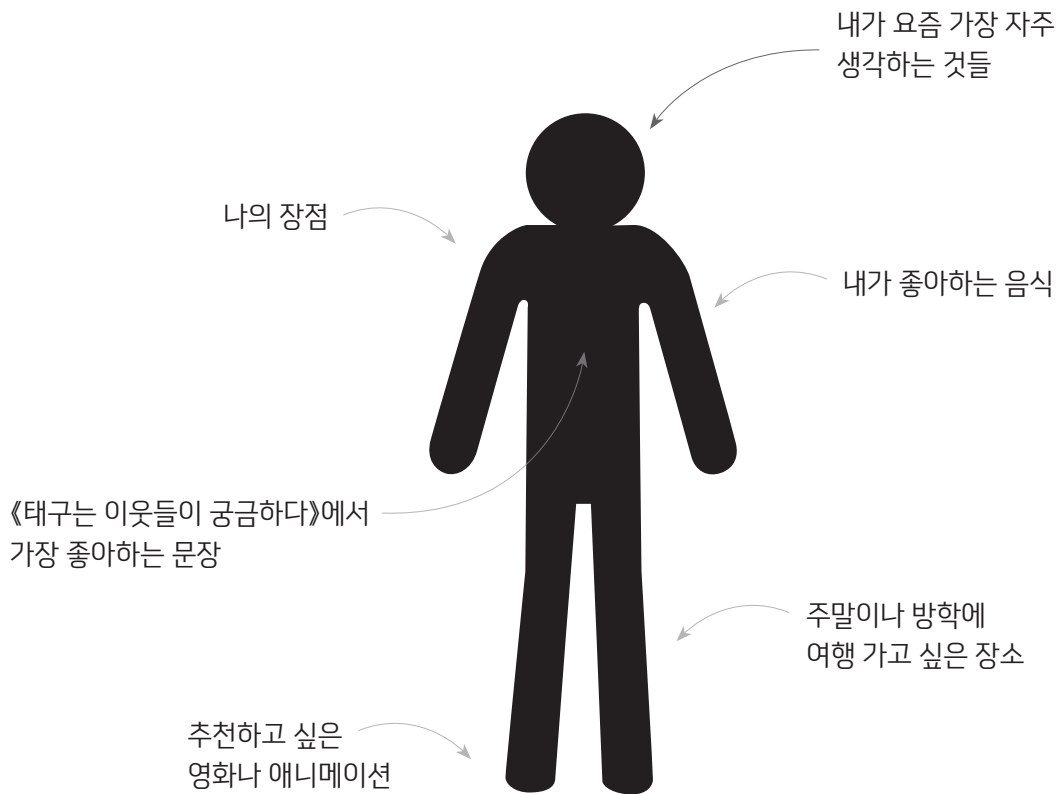


아래 활동을 통해 친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나는 이런 사람이야!’ 카드에 나에 대한 정보를 적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 다 적은 뒤 종이를 점선에 따라 오려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친구 알아맞혀 보기’ 놀이를 해 봅시다.

- 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카드를 칠판에 무작위로 붙입니다.
- ② 카드를 천천히 읽으며, 어떤 친구의 것일지 추측해 봅니다.
- ③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 봅니다.
- ④ 다 함께 정답을 맞춰 봅니다.

독서 활동지 정답

미션 4 : 아홉 칸 낱말 퀴즈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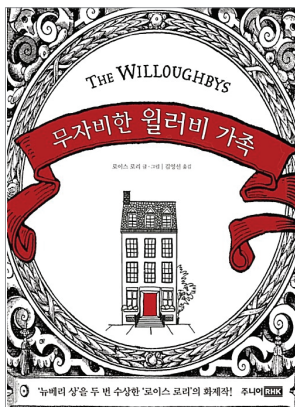
경계하여 조심하는 마음. (경계심)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 (침묵)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됨. (실종)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 (결단)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 (사생활)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하게. (어렴풋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피하는 것. (이기적)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줄여 이르는 말로,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 (워라밸)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보태어서 나타냄. (엄살)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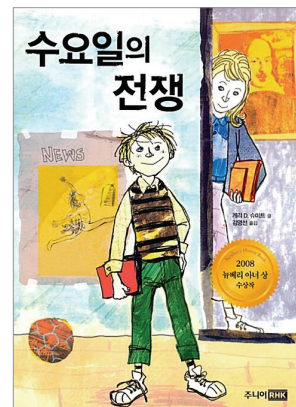
같은 길을 지닌 다양한 이야기는 아이가 세상을 좀 더 입체적이고 다채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태구네 가족만큼 특별하고 웃긴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 보고 싶다면



《무자비한 윌러비 가족》
로이스 로리 글·그림 | 김영선 옮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묘미를 깨우치며
성장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수요일의 전쟁》
게리 D. 슈미트 글 | 김영선 옮김

태구처럼 관찰하고 조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쳐 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빨간 펜》
사와이 미호 글 | 전해원 옮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작품과 반대되는
SF 판타지 장르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지구의 마지막 소녀》
리 베이컨 글 | 손성화 옮김